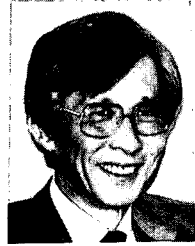


# 「自然」의 뭇을 보호하나



김 의 원 / 경원대 대학원장

## 「自然」이란 무엇이나

공해나 지구환경문제는 지난 6월 리오데자네이로의 환경썬밋 회의 이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듯 하다. 우리가 흔히 「自然」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중국에서 유래한다. 중국에서 최초로 「자연」이란 말이 쓰여진것은 <老子>에 서이다. 「人地法 地天法 天道法 道自然法」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사람은 땅의 지배를 받고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는다. 하늘은 道의 지배를 받지만 道는 自然의 지배를 받는 법」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道”의 방법을 <無爲自然>이라 했고 이것을 체득한 사람을 <聖人>이라 했다.

요즈음세상이 2,400년전에 <老子>가 <自然으로 돌아가라>고 말한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18세기에 잔자크 루소란 서양 사람이 <自然으로 돌아가라>고 한것은 대단한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문으로 동양사람이 말한것은 보수적이고 봉건적이란 딱지가 붙는 반면 서양사람이 로마자로 쓴것이면 진보적이고 귀중한 것이란 인식이 우리를 혼란으로 몰아 넣고 있다.

却說하고 필자는 지난 2월에 대단히 감명 깊은 글을 읽었다. 나혼자 간직하기엔 아쉬운 생각이 들어 논문의 대략을 옮겨 보기로 한다. 필자는 일본의 京都大學 교수인 가와나베 히로야(川邦部法哉)

씨인데 제목은 표제처럼 “「自然」의 뭇을 보호하나”인데 내용인즉 심정적인 보호론도 안일한 개발론도 잘못이란 兩非論을 편 것인데 내용이 대단히 재미 있다. 중요한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현시점에서 「따오기」를 보호하라는 운동은 생태학적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멸종이란것은 마지막 한마리가 죽었을때 일어나는것이 아니고 자손을 계속해서 퍼트리는 상태가 중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아마 모르는는 해도 수마리 남아 있을때 이미 문제는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래문제도 마찬가지다. 滅種危機에 처해있는 고래를 보호하자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賢明하기 때문」이라던가 「울기 때문」이라던가 「捕鯨은 도대체가 야만스럽다」란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모든 肉食은 안된다」고 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단순한 이론도 맞지않는다. 하천제방을 녹색으로 칠해놓고 안심하는것은 논외로 친다해도 높은산에 튜울립을 심는다던가 유칼리 나무를 심어놓고 綠化運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自然이란 무엇이나」하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우리가 문제 삼을것은 「人間的 自然」이다. 생명의 출현에 따라 그때까지 있었던 자연은 생명체의 환경이 되

었다. 즉 자연은 「生物的 自然」이 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억년전 일이다.

시간이 흘러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탄생함으로써 자연은 「人間的 自然」이 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3백만년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연과 여러가지 관계를 맺어 왔을뿐 아니라 자연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다. 따라서 인간성립이전의 「自然」을 문 제삼는것은 이치에 맞질 않다.

그러나 최근의 극히 짧은 연대에 불과 50년 사이에 「인간적 자연」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무슨무슨 자연」시대에 들어간다면 별문제이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것은 아닌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적 규모와 동시에 지역적인 형태로 인간적 자연」의 회복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환이가 원수가 될수도

자연의 밸런스란것은 요지부동의 것은 아니다. 빗나가 작용을 하면 조금씩 변화를 한다. 또한 이것이 한도를 넘으면 균형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 더욱 그곳에는 생물상호간의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사이의 역사성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개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라고는 하지만 경박한 행위가 상대의 인간이나 인간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유감스럽지만 가끔 있는 일이다. 이것이 자연에 대한 경우는 이러한 위험은 대단히 크다. 여기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조그만한 섬에 살고 있는 일본 노루는 여러곳에서 增殖過大로 골치를 앓고있다. 그들은 진화과정에서 가령 동료, 심할때는 새끼를 먹는 동물이란것을 전제로 해왔다. 즉 먹히는 수, 혹은 다른 이유로 죽은수를 계산에 넣고 새끼를 출산하게끔 유전적으로 결정해왔다. 그런데 이 폐습이 없어지자 일본노루의 새끼들은 거의 생존 하게 된 결과 이번에는 주위의 식물을 전부 먹어 치웠다. 이렇게 되자 이 노루집단은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다. 産兒制限을 하는 지혜가 노루에게는 없기 때문에 가령 출산율이 낮은 개체를 선택하는 자연도태현상이 일어났다

해도 수십년 아니 수백년으로서는 눈에 띄이는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더알기 쉬운 예를 들어 보자. 가령 “벼”의 경우, 벼는 세계각국에서 여러가지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개량은 대단한 것이어서 각기 자기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純系가 품종개발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의 수요의 편의 때문에 사실은 그중 극히 일부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된다.

### 중요한 生物의 相互관계

아프리카 중앙부에 있는 탄가니카호부근에는 현 지인의 주식인 캣사바가 흰개미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캣사바는 남미가 원산지인데 거기서는 흰개미는 살아있는 캣사바를 공격하는 일이 없다한다. 캣사바가 말라죽었을때 굶아먹는데 이것을 아프리카에 심으면 살아있는 나무를 굶아먹는다 한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흰개미가 의리가 없다는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재래의 나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말라 죽어야만 공격한다.

즉 남미의 나무와 남미의 흰개미 사이에도 아프리카의 나무와 아프리카의 흰개미 사이에도 살아있을때는 공격하지 않고 말라 죽었을때 공격한다는 협정이 되어 있는것 같다. 그러나 인간이 가져온 최근까지 미쳐 만나본 적이 없는 남미의 나무와 아프리카의 흰개미사이에는 그것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남쪽나라에서 수입해온 고기들이 우리나라 댐이나 저수지에서 재래종 고기를 전부 잡아 먹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빅토리아호에 방류된 나일바치와 테라비아란 고기는 이 호수에 있는 전고기를 멸종 시켜버렸다 한다. 자연이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포함한 생물과 비생물적환경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총체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준의 다양성을 크게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자율적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따라서 그 자연보호란 것은 이들 총체의, 총체로서의 보호라 할 수 있다.